

뉴 노멀 시대의 문화 관광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

CUAI 4기 문화콘텐츠 B팀

안익균(응용통계), 이효근(소프트웨어), 이민규(소프트웨어), 음호준(물리학)

코로나 19 발생 이후 여행객들의 문화 관광 실태를 분석하여 변화를 예측하고 국가의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민간데이터, 국가승인통계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 뉴-노멀 시대의 국내 여행객들의 관심사 및 수요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의 방문객 수 증가 지역을 분석한 결과, 국내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목받지 못한 국내 타지역의 개발 및 홍보 필요성을 촉구하는 정책 제언을 하였다.

1. 서론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관광/문화사업은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지속되는 팬데믹으로 하여금 다양한 여가 생활 및 취미활동 취소의 증가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감이 상승하는 소위 “코로나 블루”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힐링 요소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였고, 관광산업은 이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부흥시켜 준다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분석해 보았다. 크게 눈에 띄는 두 가지 변화 중 하나는 관광 목적의 여행보다 호캉스와 산, 계곡 등의 힐링을 목적으로 한 여행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여행의 수요가 급감하는데 비해 국내여행의 수요는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2. 본론

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1-1) 분석 데이터 선정

한국관광 데이터 랩의 기초지자체 내국인 방문자 수를 분석하여 코로나 19의 국내 전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간인 2020년 2월 이후, 방문자 수가 증가, 유지된 지역을 선별한다. 신한카드 데이터를 분석하여 내국인 신한카드 지출 내역 중 코로나 19 발생 이후 기간인 2020년 2월 이후, 이용건수 및 지출액이 증가, 유지된 지역 및 업종을 분석한다.

2020년도 지역별 방문자수 데이터를 csv로 다운로드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이 0보다 큰 지역만 선별한다.

선별된 지역 중 방문객 증가율이 특별히 큰 지역 4곳(당진시, 연천군, 양양군, 밀양시)을 선정하여 방문객이 증가한 이유를 분석한다.

2) 지역별 분석

2-1) 충남 당진

국민의 대다수가 위치해 있는 수도권과 가까운 위치에 있음으로서 지리적 이점이 있다. 당진시의 2019년 대비 2020년의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감소율은 29.86% 증가하였고, 특히 자연관광지는 2020년 기준 전년도 대비 47.21%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당진시의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량)

지역	2019년	2020년
전체	810,000	29,86
자연관광지	151,462	47.21
문화관광지	14,343	9.03
휴양관광지	5,913	12.81
공휴일행사	4,633	-43.89
문화시설	21,559	-13.89
레저스포츠(레저/스포츠)	36,729	20.34
숙박	21,296	20.89
식음료	342,024	31.25
숙박	56,424	28.74
기타관광지	154,707	30.95

당진에는 대표적으로 난지도와 아미산 등 넓고 자연환경을 잘 활용한 관광지가 주목받았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안전을 위해 넓고 탁 트인 장소를 선호하는 것과, 코로나 블루로 인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당진의 아미미술관은 포토 존으로 잘 꾸며놓은 것이 특징이며, 젊은 세대의 니즈를 잘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미술관은 특히 SNS에 게시글이 많아, 이를 통한 홍보 효과도 간접적으로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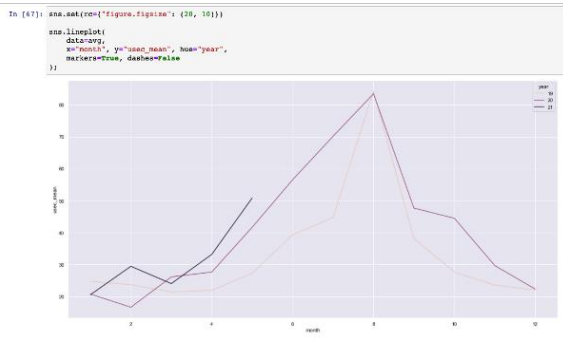
2-2) 경기 연천

경기도 북쪽에 북한 철원군과 경계선을 기준으로 맞닿아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등 인구가 주요하게 밀집하여 있는 장소와는 거리가 멀다 보니 경기도 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현저히 적어,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관광지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연천군의 포털사이트 검색량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연천군은 자연관광을 통한 힐링 여행을 주로 제공하며, 군사 경계선에 있는 역사 현장 체험 역시 연천군의 주된 특징이다. 이 외에도 임진강 주상절리, 재인폭포, 역고드름, 열쇠전망대 등 자연환경과 지리적 조건을 위주로 한 여행지가 각광받고 있다.

2-3) 강원 양양

한국 관광 데이터랩의 우리지역 관광 상황판에서 양양군의 신용카드 소비액 유형별 분포, 네비게이션 검색 유형 분포를 확인한 결과, 레저스포츠의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신한카드 데이터 중 레저스포츠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분석하기로 한다.

불리언 인덱싱을 통하여 코로나 발생이후의 기간이며, 소비업종이 레저인 데이터프레임을 선별하고, groupby, agg 메소드를 이용하여 각 연월별 이용건수의 평균을 산출한 데이터프레임을 형성한다. 이후 seaborn의 선그래프를 활용하여 각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건수 평균의 변화 추세를 시각적으로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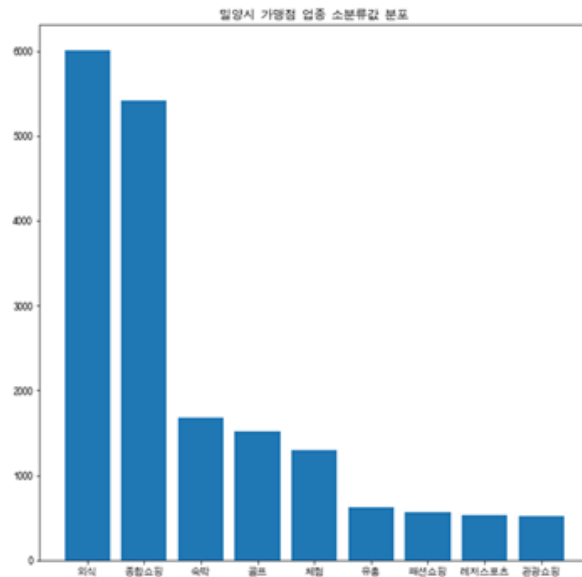
(양양군 신용카드 이용건수 연도별 평균 선 그래프)

각 연도별 동월을 비교하였을 때, 이용건수의 평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같은 현상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 관광 데이터랩의 네비게이션 검색유형 분포를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레저스포츠 하위 항목에서 수상해양스포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골프장도 레저스포츠 하위 항목에서 수상해양스포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양양군의 관광 자원 중 수상해양스포츠, 골프장을 주목하여 조사한 결과, 양양군에는 죽도, 하조대 등의 해수욕장 및 서핑 명소 서피 비치, 스노클링 명소 장호항 등 해양 레저스포츠 명소가 많고, 설해원, 탄비치 등 골프장을 보유한 리조트가 있어 방문객 유치에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 경남 밀양

신한카드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을 때, 외식, 종합쇼핑, 숙박, 골프, 체험 등의 카테고리가 우세했음을 알 수 있었다.



(밀양시 신한카드 데이터 가맹점 업종 소분류값 분포)

밀양의 관광객 유치에는 자연환경 보존의 영향이 가장 컸다. 2020년 5월에 개관한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와, 천황산 얼음굴 등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산림지역을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여 캠핑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도 비교적 안전한 관광지로 주목 받으며 성공했다. 앞으로 이러한 자연환경적 관광을 더 추진함으로써 밀양아리랑수목원을 조성하고 2023년에 국립등산학교를 개관하는 등 꾸준히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2-5) 4개 예시 지역 트렌드 분석과 미래 예측

예시의 4개의 지역은 자연환경적 성격이 강한 관광지다. 관광객들이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하여 사람이 몰리지 않는 한적한 곳을 선호하였고, 4개의 지역 모두가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켰다. 위 지역은 레저스포츠가 활발히 발달된 곳이 많았다. 또한, 의미있는 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관광보다는 휴식, 힐링 여행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4개의 지역이 힐링여행 스팟으로서 인기가 많아 보인다.

그러므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뉴 노멀 시대의 관광은 의미있는 관광지를 탐방하는 여행보다는 휴식, 힐링의 의미가 강조된 관광이 흥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팬데믹 상황이며, 앞으로 이러한 팬데믹의 상황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뉴 노멀 시대의 관광을 유지하며 보완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또한, 각 지역의 자연환경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관광산업을 펼칠 수 있다면 효과적인 것이다.

3. 결론

4개 지역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개방된 공간인 자연관광자원을 이용하여 방문객을 유치했다. 해안가, 산악지대 등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방문객이 많았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변화된 문화관광 트렌드는 조사된 바와 같이 개방된 공간에서의 레저스포츠 혹은 휴식, 힐링 목적의 국내 여행이 될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춘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분산관광을 유도하는 정책.

1-1) 더욱 강력한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주요 관광명소의 입장객을 전면 예약제로 운영하고, 넓은 지역의 경우에는 구역을 충분히 나눠서 감염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입장 시간대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눠 특정 시간대에 관광객이 몰리지 않도록 한다.

예) 해수욕장 등에서 전체를 한 구간으로 통일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통제하고, 입장 가능한 시간대를 1,2 시간등으로 나누어 특정 시간대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방지한다.

1-2) 실시간 방문객 수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의 관광객들의 입장이 예상되는 장소, 혹은 시간대의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GPS 및 통신사 정보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관광지 방문객 수를 시각화하여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 실시간으로 지도에서 이동인구밀도를 시각화하여 제공. 처음 사용하는 방문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인성이 좋은 시각화 자료로 가공하여 제공해야함.

1-3) 이미 방문객 수가 충분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방문객을 분산한다. 이미 수집한 통계 자료로 미루어보아 다수의 방문객이 재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특정 관광구역으로의 방문객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다른 관광구역을 개발하여 방문객의 관심도를 분산, 결과적으로 단일 관광명소로의 방문집중도를 해소한다.

예) 관광명소 부근에 카페거리, 쇼핑거리 등을 조성한다.

해안 관광지라면 해수욕장 부근에 관광객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관광객들의 재방문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수욕장 부근에 카페거리, 쇼핑거리, 식당거리 등 관광 목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인위적이고 통제적인 느낌 없는 분산된 지역으로의 방문을 유도한다.

2) 주목받지 못한 관광지 개발 및 추천 전략
코로나 팬데믹 발생 여행 목적은 개방된 공간에서의 휴식, 휴양 그리고 레저스포츠이다.

이러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방문객 수 회복률이 저조한 지역을 개발하고 추천한다. 직업, 연령대 등 여행객들에 따라 이용하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 홍보 및 추천이 필요하다.

예) 포항시의 신흥만은 양양군의 서피비치와 같이 서핑객들에게 관광의 명소이며, 호미곶 등 개방된 관광명소가 있는 지역이다. KTX를 통한 전국적 규모의 접근성도 용이하여 홍보 및 추천에 적합하다.

보령시는 성주산 자연 휴양림등 코로나 19 발생 이후에 국내 관광객들의 선호 관광 유형인 휴식, 휴양에 적합한 관광 자원이 있으며, 수도권으로부터 양양군 등 강원도 유명 관광지와 비슷한 거리에 위치함. 대천 해수욕장이 있어 해양 레저 및 휴양에도 적합한 지역이다.

참고 문헌

김현주 등 10인, “코로나19의 관광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KCTI, 2021-01
정대영, 이수진, “코로나19, 여행의 미래를 바꾸다”, GRI(경기연구원), 2020-05
자연조건 살린 ‘친환경정책’, 밀양의 미래
(shindonga.donga.com/3/all/13/2692009)